

## 부 고

마리아 엔겔린다 MARIA ENGELINDA 수녀 ND 5082

마르타 앙게넨트 Martha ANGENENDT



독일, 코스펠트,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

출 생: 1937 년 1 월 5 일 오버하우젠  
서 원: 1963 년 4 월 16 일 물하우젠  
사 망: 2024 년 2 월 5 일 물하우젠  
매 장: 2024 년 2 월 9 일 물하우젠, 수녀원 묘지

**"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."**  
(마르코 9,37)

마르타 앙게넨트는 하인리히와 빌헬미네 앙게넨트 사이에서 태어난 네 명의 자녀 중 맏이었다. 마르타는 여동생 한 명과 남동생 두 명과 함께 성장했다.

8 년간의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에 2 년간 부어-카셀에 있는 가정 경제학 학교에 다녔다. 그 다음에는 레세에 있는 병원에서 영유아 및 소아과 간호사 교육을 마치고 1958 년까지 근무했다. 1960 년 물하우젠에서 수련을 시작할 때까지는 켈던-바에스동크에 있는 어린이 집의 영아 병동에서 일했다.

서원 후에는 켐펜, 바흐텐동크, 휠스, 로이트 등 물하우젠 지방의 여러 어린이 집에서 교육자로 일했다. 이미 영아 병동에서 일할 때 어린 아이들을 특히 잘 다룬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기에 그에 따라 파견되었다.

엔겔린다 수녀는 로이트에 있는 '도움이신 마리아'의 집에서 중복 장애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 교육자로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다. 수녀는 공감할 줄 알았고 어머니같은 자세로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었다.

수녀는 여러 차례의 정형외과 수술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했다.

1994 년 교육 사도직에서 은퇴한 후 2010 년 물하우젠의 하우스 살루스로 옮길 때까지 '도움이신 마리아'집의 안내실에서 봉사했다.

마리아 엔겔린다 수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공동체 생활에 참여했다. 작년 한 해 동안 한계가 점차 늘어나면서 나이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을 반복했다. 또한 "더는 못 하겠다,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" 라거나 "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"는 말을 자주 했다.

2 월 5 일 정오 무렵,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수녀의 소원이 이루어졌다.

우리는 믿음으로 하느님께서 엔겔린다 수녀의 고통을 끝내셨고 이제 수녀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.